

“헌혈! 신고합니다” 희망프로젝트에 대한 보고서

- 한마을혈액원, KBS1 TV ‘청춘! 신고합니다’ 촬영 협조 -



헌혈버스 내부 모습, '희망프로젝트 60만의 힘' 이 실현되는 공간이기도 하다.

오전 10시에 출발한 한마을혈액원 헌혈버스는 서해안고속도로를 지나 서산 해미IC를 지났다. 이곳에 오는 내내 시선을 끄는 것은 며칠 전에 내린 눈을 흠이불처럼 덮고 있는 논밭과 야트막한 산이다. 겨울 들판, 아무것도 없는 저 빈 공간이 쓸쓸하기보다는 오히려 평화로워 보인다. 아마도 지금 가는 길이 국토방위를 위해 이 겨울에도 땀방울을 흘리고 있는 주인공, 국군 장병들의 헌혈 때문일 것이다.

오늘 가는 목적지는 서산 해미면에 위치한 공군 제 20전투 비행단. 하지만 우리를 이곳에 부른 이는 이곳 장병들이 아닌 KBS 방송국이다. 또한 우리가 이곳에서 할 일은 매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에서 방송되는 '청춘! 신고합니다' 프로의 한 코너인 [희망 프로젝트 60만의 힘]의 진행에 협조하는 일. 60만 장병들의 대국민 봉사, 헌혈하는 듄직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 코너는 기존의 위문 프로그램과는 달리 장병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책임 있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군인이라는 이미지를 살리는 데 주안



헌혈에 앞서 헌혈 문진표를 꼼꼼하게 읽고 있는 이등병. 손이 유난히 까칠까칠 하다.

점을 두어 그 부분이 한마음혈액원의 방향과 맞아 떨어져 진행을 돕게 된 것이다. 이번으로 벌써 3번째이다.

12시쯤 헌혈버스는 삼엄하게 경계를 펼치고 있는 헌병들의 안내를 받으며 부대 진입 성공, 오래된 비행기가 전시되어 있는 마당을 지나 열차려를 받는 듯한 가로수를 지나 본부 광장 앞에 멈췄다. 도착하기 전부터 헌혈 준비에 분주한 방송을 아는(?) 간호사들이 담당 장교의 “밥 먹고 합시다” 제안에 빠른 손놀림으로 헌혈 준비를 마쳤다. 여기서 먹는 점심은 당연히 이곳이 군대이니 군대 짬밥을 먹겠구나 했는데 기대와는 달리 ‘부대찌개’가 나왔다. 부대에서 먹는 ‘부대찌개’, 그 맛은? 프랑스 파리에서 대표적인 프랑스음식, 프와그라(Foie gras)를 먹는 기분이다.

본격적인 촬영 시작, 세일기간에 몰려드는 인파처럼 장병들이 헌혈버스에 올랐다. 하늘도 아는지 그 뜨거운 열기라도 식히려는 듯 눈이 내리기 시작한다. 그 눈을 뚫고 [희망 프로젝트 60만의 힘]의 진행자, 탤런트 김명국씨가 장병들의 환호를 들으며 등장했다.

헌혈과 ‘맥도날드’ 아저씨로 유명해진 김명국씨와의 인연은 각별해 보인다.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을 앓고 있는 아들 영길군(예전 이름은 ‘주호’였는데 길게 살라고 이름을 ‘영길’로 바꿨다)과 소아암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 작년에는 250km에 달하는 고비사막을 가로지르는 마라톤을 완주하기도 했다.

몇 번의 리허설 후, 조명이 켜지고 카메라가 돌면서 녹화가 시작되었다. 눈 때문인지 좀 전에 걸려온 아들 전화 닳인지 김명국씨는 들고 있는 카메라를 멈추게 하고 직접 헌혈을 하겠다고 깜짝(?)선언하였다.

이유는 그 동안 장병들의 헌혈을 독려했지만 정작 자신은 헌혈하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다고 했다.(사실 김명국씨는 두 달에 한번씩 개근하여 헌혈하고 있다.) 그 덕분에 헌혈의 전 과정과 카메라가 가는 족족 비춰지는 한마음혈액원 로고가 우리를 기쁘게 했다. 헌혈하는 중간에 멍하니 눈 내리는 창가를 바라보던 김명국씨



공군 제20전투 비행단 장병들이 헌혈을 기다리고 있다.



눈 내리는 가운데 김명국씨 진행으로 시작된 '청춘 신고합니다'의 촬영장면

는 “벼랑끝에 선 아이들, 누군가 그 아이를 잡아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나 자신, 바로 당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한 아이가 또 우리 곁을 떠나기 전에 생각을 바꾸고 헌혈에 동참해 주세요.”라고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방송 촬영이 끝나고 본격적인 장병헌혈이 시작되었다. 눈 내리는 겨울 날, 방송 촬영 내내 추운 밖에서 기다리며 이제 막 헌혈을 마친 이등병은 까칠까칠한 손에 ‘그만 좀 먹으라’ 고참의 타박을 견뎌가며 꾸역꾸역 초코파이를 먹고 있다. 눈이 마주치자 쑥스러워 하는 이등병, 세월이 많이 흘러도 이등병의 배고픔은 여전한 것 같다. 끝없이 헌혈버스

로 들어오는 장병들, 황성신 과장은 초조한 마음에 버스를 오르락내리락하며 장병들의 숫자를 파악한다. 헌혈 후 6시간 이내에 성분제제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 안타까운 마음을 장병들은 알지 못하니 막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계속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도 헌혈한 장병들은 안다. 아니 60만 장병들은 안다.

헌혈 후에 자신의 피가 담긴 배부른 헌혈백에 불을 대보면 아직도 따뜻하다는 것을, 헌혈로 빠져나간 피만큼 아니 더 많은 양만큼 뿌듯함이 파스함을 간직하고 다시 마음에 수혈된다는 것을. “헌혈은 가장 귀중한 봉사입니다.”



헌혈에 직접 참여한 김명국씨, 평소 보여준 코믹한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진지하게 헌혈에 임하고 있다.